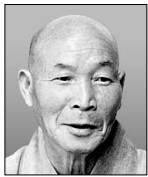


일주문



봉은사서 법문
순천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은 2월 11일 서울 봉은사 법당에서 '내안의 부처님을 보라' 주제로 법문을 했다.



재소자 설날 차례상 차려
정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2월 9일 안양교도소를 방문, 전 재소자에게 떡국공양을 하고 모범수들을 위해 차례상을 차려주었다.



신임포교사 품수식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2월 19-20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10회 신임포교사 품수식을 거행한다.(02)2011-1893



법흥사에서 방생법회
화성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2월 19일 강원도 법흥사에서 용주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방생법회를 봉행한다.(031)234-0040



불교환경연대 정기총회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2월 24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 교육관에서 신년 사업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일본불교련 천도법회 참석
제주 불광사 주지 자법 스님은 3월 1일 동경 묘엄사에서 열리는 조총련 일본불교연합회 합동천도법회에 참석, 부모은중경 계승 등 천불가공연을 한다.



승만경 강의
우리는선우 이사장 성태용 교수는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사무실에서 <승만경> 강의를 한다.(02)2278-8672



기무사령관 퇴임
국군불교총신도회 고문 송영근 중장은 1월 27일자로 기무사령관직에서 퇴임했다. 송 중장은 2003년 기무사령관에 임명돼 그동안 기무사 개혁을 주도했다.



신수회 회장 재임
신수회 회장 이남승 씨(조계종 포교사)는 1월 29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당선자 모임인 신수회 제3대 회장에 재선됐다.



정기대의원 총회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 현일환 회장은 2월 18일 오후 8시 서울 만해교육원에서 제28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02)739-4448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주역 배출할 것”

동방대학원 대학교 초대 총장 정상욱 박사



1996년 12월 대학원대학 설립 신청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이후 10년만인 올해 3월 14일(예정) 개교하는 동방대학원 대학교의 산증인 정상욱 총장(59·사진). 정 총장은 2월 4일 기자에게 “천신만고 끝에 동방대학원 대학이 문을 열게 돼 감격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 총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동양사상을 양지로 끌어내 계승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1946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 한문학 석사와 산동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총장은 계명대 서예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산동대 겸임교수이다.

▲개교를 축하드립니다. 10여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요?

-1995년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포천에 있던 학교건물이 공사비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뒤 어려운 고비를 3-4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재까지 모두 소모했습니다. 다행히 2002년 태고종과 인연이 맺고, 이후 총무원장 윤산 스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개교까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개교할 수 있도록

돌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종단의 원로 대덕 스님들과 종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방대학원 대학의 특징은?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이념은 “동방문화 정답”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전통문화 속에 녹아 있는 특질을 찾아내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학과개설도 이러한 특색에 맞춥니다. 문인사화학과 민속문화학과, 불교문예학과가 있는데요. 문인사화학과는 서법예술(서예) 회화예술(동양화), 민속문화학과에는 역경예측과 풍수환경, 불교문예학과에는 불교미술과 불교음악학 석사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신입생 등록현황은?

-신입생 정원이 50명인데 지금까지 석사과정에 30명이 등록했습니다. 연구과정으로 등록된 학생까지 총 48명입니다. 신입생 입학 전형을 하며 가장 처음 원서를 접수한 학생을 직접 만났습니다. 서

을대를 졸업한 이 학생은 동양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학문에 대한 의욕도 대단했습니다. 이 학생을 보고 대학원의 전도가 밝을 것이라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학교 운영계획은?

-교수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사회의 각종 장학금을 끌어들이고, 교내 장학금 조성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연구과정도 개설해 대학원 입학 자격요건이 안되는 보다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박사과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확보된 학교 수익금 재산 12억원을 활용하여 50명의 현재 신입생 정원을 늘려 2-3년내 학교운영에 적정수준인 300명의 재학생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립기반 구축에 대한 복안은?

-태고종에서 매년 1억원의 재단 전입금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양사상을 두루 공부할 수 있는 41개 강좌가 개설된 대학원대학 부설 동방문화교육원을 운영하고, 학점은행의 독학사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언론사불자연합회장에 이연재씨 취임

“회원 참여율을 높이고 모임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언론인 불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신문사를 비롯해 증권사, 은행 등이 집중돼 있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포교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언론사불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여의도 지역 직장인불자들이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직장불심 하나로 모을 터”

2월 17일 MBC, KBS, SBS 등 방송 4사 소속 불자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사불자연합회 새 회장으로서 취임하는 이연재 MBC 불교연 구회장(51·사진)은 연합회 활성화에 주

“중책을 맡으면서 느슨했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이회장은 “회원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연구원 김일권 법사로부터 불교를 익힌 이회장은 지금도 각종 수행모임에 참여하는 등 수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MBC 기자회견, 업무혁신위원회, 인력개발위원회를 거쳐 현재 보도전략팀장을 맡고 있다. 박봉영 기자

갑사, 괴목대신제 봉행



공주 갑사의 괴목대신제가 2월 11일 대웅전과 괴목 앞에서 진행됐다. 주지 장곡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괴목대신제는 제사 의식과 놀이마당 등으로 꾸며졌다. 갑사 괴목대신제는 사찰과 마을 주민들이 이 지역을 지켜온 괴목에 제사를 지내는 전통문화행사다.

동산불교대 2005학년도 입학식



서울 동산불교대학장 무진장 2005학년도 입학식이 2월 5일 동산불교대학관에서 신입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입학식 1부 순서에서 학장 무진장 스님은 “오늘의 한국불교를 바르게 공부해 열심히 포교하는 역군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동국대 우체선 교수 가인도불교사를 강의했다.

이웃돕기 자비의 쌀 나누기



서울 능인정사 포교원(주지법경)은 2월 4일 ‘이웃돕기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법경 스님과 신도들은 이날 그동안 모아온 자비의 쌀 60포대를 광진구 관내 어려운 이웃 60세대에 전달했다. 능인정사는 지난해 동지에도 성동구 관내 불우 이웃들에게 쌀 60포대를 지원했다.

“늦깎이요? 대학원 진학해요”

위덕대 최고령 졸업 이천우씨 ‘끝없는 항학열’



올해 다시 대학원 진학을 앞둔 이 거사는 “교학적 이해가 넓어질수록 불교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남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민학의 즐거움을 밝혔다. 조홍수 기자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여유가 생기니 사업도 더 잘됩니다.” 2월 17일 위덕대 불교문화학부를 졸업하는 늦깎이 대학생 이천우(47·적당·사진) 거사. 이 거사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2003년 위덕대에 편입했다. 원래 금속공학을 전공했던 그가 불교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포항 죽림사 불교

대학을 마치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다. 물론, 자신했 되는 대학생들과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자신보다 불심이 더 돈독한 아내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이 거사는 포항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가다.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2005년도 1학기(12기생)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모집

- 1. 수업시간 : 불기 2549년(2005년) 3월 8일부터 ~ 6월 21일까지(15주)
2. 강의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3시간)
3. 모집인원 : 30명 4. 수 강 료 : 40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16-24-0629-134 사회교육원)
5. 접수기간 : 3월 3일까지 ※ 전화접수 가능
6. 문 의 처 : 서울 중로구 명륜동 2가 41-4번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 4번 출구 200m, 2분거리)
사회교육원 교학과 전화 : (02)760-5781-2 / Fax : (02)760-5789

※ 2년 전과정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 1학기 과정 수료생에게는 사회교육원 원장명의로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개설과목

Table with 4 columns: Course Name, Day/Time, Duration, Instructor. Courses include Computer Education, Buddhism and Societ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http://cce.khu.ac.kr 열린 대학교육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생 모집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Details. Courses include Basic Mathematics, Welfare Administration, Korean Traditional Folk Culture, Hanmun Interpretation, and Hanseonghaek.

▶ 특 전 : 경희대 총장명의로 수료증, 도서관 이용 ▶ 접수기간 : 2005년 2월 25일(금)까지 (방문접수·평일)

- 개 강 : 2005년 3월 2일(수)부터 각 강좌 해당 요일
■ 접 수 처 : 동대문구 회기동1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네오르네상스관 2층)
■ 문 의 처 : ☎ (02) 961-0870~2 홈페이지 http://cce.khu.ac.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교육과정을 보실수 있습니다.)
■ 교통안내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1번출구(마을버스 정문하차)